

-(으)ㄹ 만도 하다

수긍·이해 — ~할 만도 하다, 그럴 만하다

누군가의 반응이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합니다. -(으)ㄹ 만하다와 한 음절 차이지만, 도가 더해지면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만도 하다	나다 → 날 만도 하다
받침으로 끝남	-을 만도 하다	웃다 → 웃을 만도 하다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만도 하다
‘진작 ~했을 법함’의 뜻	-(으)ㄹ 만도 한데	이제 올 만도 한데
주로 대상이 되는 것	다른 사람	반응을 인정함
대신 ‘할 가치가 있음’	-(으)ㄹ 만하다	볼 만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: 만들다 → 만들 만도 하다. 만은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

보통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 말하며,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만하다고 인정합니다: 그렇게 기다렸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.

공감하는 말투입니다. 상대의 입장에서 수긍해 주며, 상황을 누그러뜨리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두 번째 용법은 어떤 일이 진작 일어났어야 함: 이제 올 만도 한데를 나타냅니다 — 지금쯤이면 올 만도 한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두 시간이나 기다렸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.
- 2 그런 말을 들었으니 서운할 만도 해요.
- 3 처음이니까 실수할 만도 합니다.
- 4 이 정도 고생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하네요.
- 5 몇 번을 실패했으니 다시 만들 만도 하지요.
- 6 이제 도착할 만도 한데 연락이 없네요.

■ 비교

-(으)ㄹ 만하다
모든 차이는 도에서 생깁니다. 만하다는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, 만도 하다는 반응이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합니다.
볼 만해요. (볼 가치가 있다) / 화날 만도 해요. (화가 날 만하다)

-(으)ㄹ 법하다
법하다는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다고 평가하고, 만도 하다는 반응에 공감합니다. 둘 다 단정을 피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.
그럴 법해요. (충분히 그럴 수 있다) / 그럴 만도 해요. (그럴 만하다)

-(으)ㄹ/는 법이다
법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단언하고, 만도 하다는 특정한 경우 하나를 너그럽게 봐줍니다.
누구나 실수하는 법이다. (누구나 실수한다) / 처음이니 실수할 만도 하다. (이번엔 그럴 만하다)

■ 주의

- ✗ 그 영화는 볼 만도 해요. — ‘볼 가치가 있다’는 뜻으로 쓴 경우
○ 그 영화는 볼 만해요.
도를 더하면 ‘그럴 만하다’는 뜻으로 바뀝니다. 추천할 때는 만하다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.
- ✗ 몇 번을 실패했으니 다시 만들을 만도 하지요.
○ 몇 번을 실패했으니 다시 만들 만도 하지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처럼 이미 ㄹ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✗ 저는 화가 날 만도 해요.
○ 그 사람은 화가 날 만도 해요.
이 구문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. 자기 자신에게 쓰면 자기변명처럼 들립니다.